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1994.12.25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2
SPRING
VOL.42

08 인터뷰 곽승현 위임목사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되자

33 2022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④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 뿌린 제1호 한국인 선교사
이기풍



풀꽃

| 남정림

누가 너를 보잘것없다 했느냐
잠깐 피었다 지는 소임에
실핏줄이 흰히 드러나도록
숨털이 요동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했는데

땅에 납작 엎드려 살아도
햇살 한 줌 머무르는
변두리 골목 귀퉁이를 데우는
너는
하늘이 눈물로 키우는 꽃



- 시인, 에디스창의인재연구소 대표
- 시집 『사랑, 지구 너머의 계절』
- 동서문학상, 독도문예대전, 서울지하철시공모전 수상

겨자씨.

02 PROLOGUE 풀꽃	26 4월의 향기 과자 먹다가 목사가 된 이야기	50 WE 저는 초등5부 교사입니다
04 VISON 22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28 ON LOVE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	51 WE 사랑어린이부 교사, 행복한 6년
05 믿음소망사랑 거룩한빛광성교회 Ministry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교회	52 내 삶의 멘토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방민호 이 탐스러운 생명	32 성경 속 인물 초대 느헤미아	53 문화산책
07 2022 SPRING Special Theme 내가 곧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니	33 2022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④ 이기풍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 뿌린 제1호 한국인 선교사	54 COVER STORY 고향 이야기
08 테마 인터뷰 박승현 위임목사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되자	38 다음세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포문을 열다	55 茶 이야기 향기를 팔지 않는 고고함, 매화꽃차
13 3분 소망의 기도 병상에 있는 가족의 치유를 위한 기도	42 3대 키워드	56 수필 그래도 꽃은 핀다
14 선교지 밀알 필리핀 김성식 선교사 날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43 #가정예배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58 영화 '오두막'
16 희망나눔 김명진 성도 우리소리찬양대 해금 연주자	44 #다음세대 말씀 속에 들어가 신나게 뛰어노는 유치부	60 여행, 이야기를 담다 20년 만의 인사동 산책
18 포커스 I 이박행 기후 위기와 한국교회 대응	45 #리더십 제1기 온라인 제자훈련을 마치며	62 BOOK AND BOOK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하나님을 위한 변명」 「리셋 주일학교」
20 포커스 II 유미호 기후 증인과 탄소 제로 행동	46 찬송가 산책 559장 '사철의 봄비람 불어 잇고'	63 크로스로드
22 마더와이즈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47 청년광장	64 디지털한금바구니
24 광성드림학교 아침, 교장실 문을 열며	48 HOT ISSUE 청년이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같이 걷자'	65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6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67 박승현 위임목사 생명을 살리는 말씀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Ministry

훈련사역 +

제자훈련, 생활신앙, 일대일, 마더와이즈
알파, 바이블하이킹

세대별사역 +

다음세대, 조이풀 장년부, 시니어사역



원텐텐 +

2022년 원텐텐 가정예배,
2021년 원텐텐 가정예배,
2020년 원텐텐 가정예배,
가정예배 순서지



목장사역 +

온라인목장모임, 예배영상

선교, 섬김 +

해외선교, 국내선교, 지역사회섬김



거룩한빛광성교회

“ 거룩한빛광성교회 홈페이지에서
풍성한 교회 소식을 만나 보세요. ”

이 탐스러운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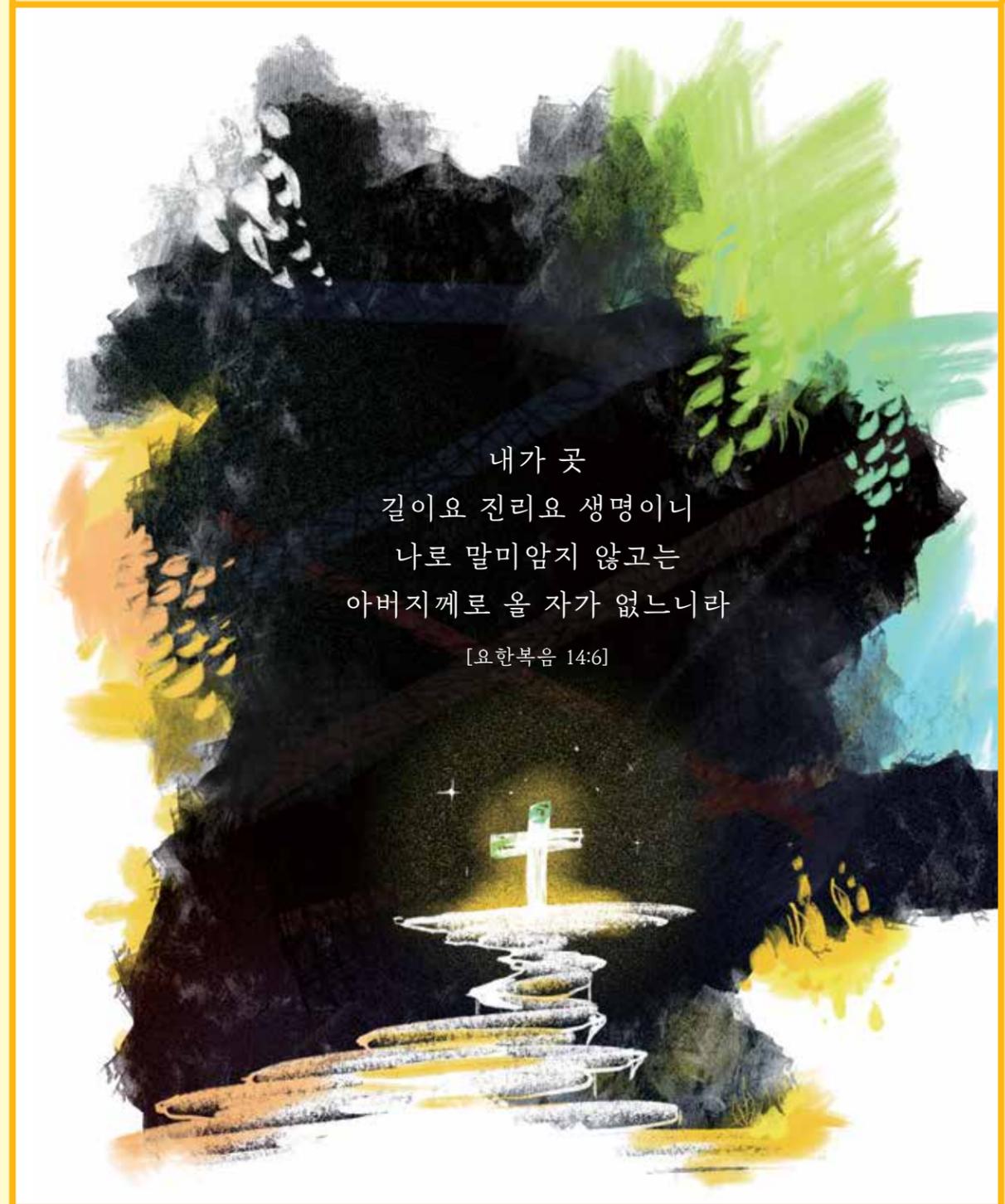
글 · 방민호(문학평론가, 서울대 교수)



어디서 감을 얻어왔다. 그냥 먹으면 뚝어서, 며칠 두었다가 물러지면 먹어야 하는 감이었다. 며칠 후 집을 나서서 내 눈에 무심결에 들어온 주황빛 감들! 아름답다 못해 탐스러웠다. 이 탐스러운 감을 보고 생각한 게 있다. 그렇구나, 비록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어도 아직 생명이 가득 들어 있는 까닭에 이 감들은 이렇듯 탐스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다. '생명은 탐스럽다. 생명은 너무 아름다워서 탐스럽다.' 영국의 작가 D.H. 로렌스는,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개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이란 인류라는 전체의 부분이자 파편일 뿐이라고 했다. 개인이 개별성의 범주 안에 안주해 버리는 것은 삶을 개별자들의 투쟁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부분들이며 이 본래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해야 투쟁 없는 삶, 사랑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나'란 무엇인가? '나'와 '너'는 이렇게 '나'라고 부르고 '너'라고 부르듯 단절된 개별적 존재들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려면 숨을 쉬어야 한다. 이 숨을 쉴 때마다 내 바깥의 것이 부단히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되고 있으며, 내 안의 것이 부단히 바깥으로 나가 내가 아닌 존재가 되고

있다. 이 간단한 이치만 생각해 봐도 '나'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것 같다. '나라는 존재의 외투는 단단하고 두꺼워서 '나'와 '남'은 쉽게 뒤섞일 수도 없고 상대를 향해 습합해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부단히 '나' 아닌 존재가 됨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나' 아닌 '남'이 부단히 내가 됨으로써만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일 것이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란 일종의 허상과도 같다. 그것은 '나'만의 구원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적 진실을 살펴보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나' 아닌 '너'마저, '남'마저 구원하지 않고는 남김없이 구원될 수 없는 영원한 사업인 것이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려면 '나' 아닌 존재들을 함께 구원하라. 이것이 당연한 귀결점이 아닐지? '나'와 '너'를, '남'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삶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는 삶의 증진법이기 때문이다. 저 주황빛 감처럼 살아 있어 탐스러운 생명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구원될 것이다. 눈이 담백 내려 세상이 아름답다. 이 탐스러운 하늘과 땅처럼 우리 인간 세상이 내년에는 한 차원 더 탐스럽게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더 탐스러운 생명의 유희를 펼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곳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 작은 교회가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교역자와 평신도 교사를 파송하고, 교회학교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사업을 시작한 광승현 위임목사

광승현 위임목사 작은 교회 두 곳에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넉넉한 그늘을 드리우고 열매를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되자

취재 · 전영의 기자 / 인터뷰 사진 · 연광홍 (거룩한빛광성교회 영상 실장)



올해 작은 교회가 교회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광승현 위임목사는 "우리 교회도 항상 교사가 부족하지만 주일에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과거 어느 주일 설교에서 말했듯 광승현 위임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세상 속으로 넉넉하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큰 나무'가 되길 바란다.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먼 길 달려온 사람이 고단함을 씻으며 쉬어갈 수 있고, 새가 날아들어 집을 짓는 품이 너른 큰 나무!
큰 나무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넉넉한 품과 더 탐스러운 열매를 내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CTS기독교TV '아주 특별한 찬양'에 출연하여 열창하는 광승현 위임목사. OCM 사역팀 '시와그림'의 보컬 김정석 목사가 함께하고 있다

작은 교회 두 곳에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QA 지난 4월 1일, 두 곳의 교회에 거룩한빛광성교회 소속 교육 전도사와 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사역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사업입니다.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란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파송하는 교역자와 교사를 총칭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전문 교역자가 없어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전문 교역자와 평신도 교사를 파송하여 작은 교회가 교회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작은 교회 두 곳에 각각 전문 교역자 1명, 교사 3~4명씩을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로 파송했고,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A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교육 전도사의 부재입니다. 재정적인 이유로 교육 전도사를 청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청빙 광고를 내더라도 열악한 교회 환경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없으면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면 다음세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다음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교사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지만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 부재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파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빛, 치유의 빛, 관능의 빛, 회복의 빛이 임하는 빛기독교요기도회. 광승현 위임목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빛기독교요기도회의 은혜를 전성도가 누리기를 바란다



CTS기독교TV 설교

QA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2곳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2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도 있고 아직 미자립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세대 사역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형제 교회 두 곳에서 교회학교 부재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형제 교회 두 곳에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점차 교단을 초월하여 이 사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상반기 사역

QA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상반기 사역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4월 2일 증강한 '원텐텐 가정예배 PT 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실시한 사역입니다. 15가정이 참여하여 5주 동안 성경적 가정예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에 진행했던 제1회 '제자·사역훈련' 프로그램에 이어, 지난 3월 6일 제2회 '제자·사역훈련'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직분의 81명 성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훈련을 통해 그리스

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제자·사역훈련' 프로그램은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반'은 기초반, '사역훈련반'은 심화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제자·사역훈련' 전 과정을 수료해야지만 장로 후보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이블하이킹'과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삼겹줄 경건 운동'

QA '사순절 삼겹줄 경건 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순절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준비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사순절 삼겹줄 경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순절 삼겹줄 경건 운동'은 사순절 기간 동안 '111 기도와 성전기도', '위임목사와 사복음서 읽기', '40일 탄소금식',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경건 운동을 말합니다.

QA 3가지 경건 운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111 기도와 성전기도'는 기도의 불 켜기 운동입니다. 매일 전 교인이 1시에 1분씩 기도하고, 40일 성전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임목사와 사복음서 읽기'는 매일 저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2장씩 읽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일 탄소금식' 운동은 오염된 지구 살리기 운동입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재활용품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갓생(God生)

QA 모든 길은 '사랑'으로 통한다고 할 만큼 사랑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바울도 '사랑'이 제일이라 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한 시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외치면서 왜 '사랑하기'에 종종 실패하는 걸까요?

사랑의 속성은 이타성이고, 그 속에는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QA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독서나 명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워드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MZ세대 사이에 '갓생'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od'과 인생을 의미하는 '생(生)'의 합성어로, '하루에 물 1.5리터 마시기', '하루에 10분 운동하기', '강아지랑 하루에 1번 산책하기' 등 소소한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성취하면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한 달에 책 두 권 읽기', '하루에 사복음서 한 장 읽기'처럼 비교적 쉽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



문병수 베트남 선교사에게 베트남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금을 전달한 광승현 위임목사

위 실천하고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껴볼 것을 권합니다. 그 기쁨이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하루하루의 성취가 쌓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 비전센터 로드맵

QA 현재 추진 중인 다음세대 비전센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다음세대 비전센터는 다음세대의 예배 공간이자 교육 공간입니다. 영아부부터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사랑부까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영아부 예배실은 고질적으로 비가 세고 있고, 초등 4, 5, 6부와 고등부 예배실은 교회 건너편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랑부는 전용 교육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교무실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또 주일, 청년부 예배가 본당에서 2시 30분에 진행되기 때문에

1~4부 예배의 간격이 너무 촘촘합니다. 그러다 보니 2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차량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차량이 서로 뒤엉켜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세대 비전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QA 다음세대 비전센터 로드맵을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다음세대 비전센터 건립에 대해 전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도들과의 공감감이 이루어지면 올해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도를 받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 한 부모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 돌반지와 목걸이를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가지고 왔어요. 무명으로 비전센터 건립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천만 원을 헌금한 가정도 있습니다. 다음세대 비전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 광승현 위임목사는 다음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 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승현 위임목사의 3분 소망의 기도



광승현 위임목사의 3분 소망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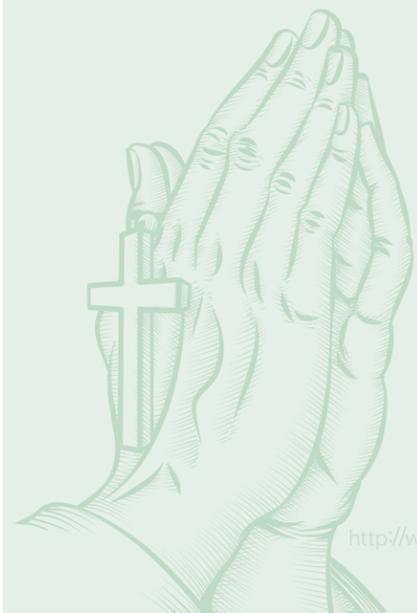
병상에 있는 가족의 치유를 위한 기도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5]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금흔이 많으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겪는 많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신경을 파고드는 크고 작은 통증과 치료 과정에서의 막연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게 하시고 치료의 방법과 수단들을 적절하게 하시며 수술하고 처치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에게 광승현 위임목사의 '3분 소망의 기도'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필리핀 김성식, 이미경 선교사 날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글/사진 · 김성식, 이미경 선교사(필리핀)



김성식, 이미경 선교사



추수감사주일 필리핀 예배

교회에 찬양단을 결성하다

우리 부부는 지난 2009년에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등록을 하고 카리스찬양단과 라라2, 조이워십, 부부목장, 예수마음증보기도학교, 열방기도회 등을 통해 봉사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필리핀 '하나님의벗교회(God's Friend Church)'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벗교회에서 먼저 성가대와 찬양단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자녀들이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비올라 등의 악기로 찬양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찬양단 합주에 맞춰 맘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은혜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지 인근의 선교사님들을 비롯해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를 조직하여 학교와 교회, 도서관, 선교센터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장학사업과 우물 사업, 제자 양육, 더 나은 세대를 위한 리더십학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사역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지 환경에 잘 적응한 자녀들

자녀들의 경우 2018년 처음 현지 학교에 다니게 될 때는 현지 언어인 따갈로그를 배워야 했고, 영어 공부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3남매 모두 좋은 성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예체능에도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과 장기를 뽐낼 수 있었습니다.



2



3

1. 4성전 성도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전달
2. 긴급 구호 쌀 나눔
3. 한인성도 단체 사진

성도들의 예배 열정

고온다습한 현지 날씨로 인해 저희 주변에는 건강이 염려되어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현장의 사역이 위협받는 악조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빈민가 성도들의 열정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정부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와 영상예배를 제작하게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교회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훈련과 성도들의 기정이 회복되는 가정교회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선교 보고와 사역지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마음으로 품고 물질로 돕는 동역자의 사명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선교사들과 소통하시면서 서로 문안하고, 현장도 방문하여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선교 공동체로 쓰임 받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소리찬양대 해금 연주자 김명진 성도

글 · 김용기 기자

국악 찬양은 평생 걸어가야 할 '나의 사명'

"해금 소리를 듣는 순간 무조건 좋았어요. 어머니를 1년 내내 졸라서 결국 해금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에게 해금은 연인과 같아요. 평생 같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거룩한빛광성교회 국악 찬양대인 우리소리찬양대의 해금 연주자인 김명진 씨는 용인대학교에서 해금을 전공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해금 연주자이지만 연주 경력은 11년 차이다.

어릴 때부터 KBS 국악한마당을 즐겨 들으며 국악에 친숙했던 김 씨는 "해금의 높고 맑은 음색에 매료되어 취미로 연주를 시작해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우리소리찬양대에서 해금 연주자로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소리찬양대 활동하며 대학전공 결심

"우리소리찬양대의 해금 주자가 된 후에 오히려 국악 찬양에 대한 절실함이 더 깊어졌어요. 고교 2학년 때 특별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해금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취미로 해금을 여러 해 동안 연주해왔지만 늦은 시기에 해금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김 씨에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전공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김 씨는 해금을 만나게 한 것



☞ 김명진 성도가 해금으로 국악 찬양을 연주하고 있다



도, 연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끈질긴 연습을 통해 해금 주자로 단단하게 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올해 6월 생애 첫 국악 찬양 콘서트 계획

"전국에 5개 팀밖에 없는 국악찬양대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 씨는 서양음악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국악은 우리 악기와 음악이면서도 경험할 기회가 적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해금과 피아노와의 협연을 통해 국악을 알리는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에 첫 개인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피아노와의 협연으로 10여 곡의 찬양곡을 연주할 예정인데 이것을 시작으로 국악 찬양을 알리고 해금 찬양곡집도 만들어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졸업을 계기로 전문적인 해금 연주자로 활동을 시작한 김 씨는 젊은 국악 찬양인을 모아 국악 찬양 기회를 늘리는 일에 힘을 쏟

을 작정이다. 대학 시절에도 캠퍼스에서 국악 찬양을 해보려 했지만, 국악에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을 만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김 씨는 국악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찾아서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우리소리찬양대 참여 요청

"국악은 서양음악과 다르지 않다."는 김 씨는 찬양과 연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소리찬양대에 들어와 국악을 배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소리찬양대는 주일마다 4부 예배 후 1시간씩 모여 연습한다. 해금을 비롯해 장구, 가야금 등 국악기 연주자가 함께 참여하며 매월 넷째 주 4부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김 씨는 "교회에 오가는 거리가 먼 만큼 찬양에 대한 열정과 기대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며 "해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앞으로 평생 걸어가야 할 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1. 우리소리찬양대원들이 교회가 운영하는 오양원을 방문해 국악 찬양 봉사를 하고 있다
2. 우리소리찬양대는 매월 마지막주 4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3. 우리소리찬양대는 매주 4부 예배를 마치고 찬양 연습을 한다

기후 위기와 한국교회 대응

글/사진 · 이박행(북내전인치유선교센터 원장)



☞ 화석 연료와 불타는 지구

지구가 부르짖는 소리

삶의 터전을 빼앗긴 북극곰의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공감대가 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주류적 가치에 대한 시대적 반성을 하게 된다. 진보 사관과 발전성장주의에 따른 무한 경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생태계 문제는 인간이 더 이상한 행복의 나라로만 나갈 수 없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9년 5월 8일에 미국 CNN이 발표한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욕심과 끝없는 소비가 자연을 파괴하고 100만

종에 가까운 다양한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양서류의 40%, 식물의 33%, 포유류의 1/3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650만 ha의 산림이 사라지는데, 생산과 소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앞으로 30년밖에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한다. 세계 야생동물 동물기금(WWF)의 건터 미들라처 정책국장의 말이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바꾸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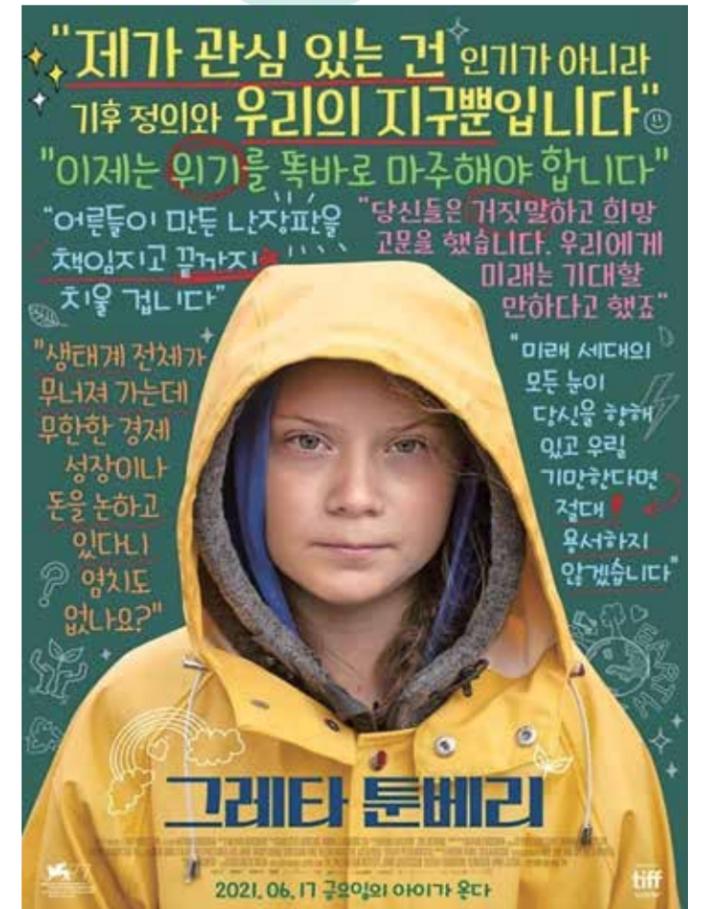
생태학자들은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이런 지구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경고한 예언자들이 적지 않았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마하, “오래된 미래”를 말한 헤레나 노르베리 호지, “불편한 진실”을 말한 엘 고어,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청소년 기후활동가 크레타 툰베리 등. 이들은 사고와 가치관에서의 근본적인 변화(radical change)와 이에 따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한국교회의 대응

코로나는 쉽게 종식되지 않을 태세이다. 델타를 거쳐 오미크론 변종이 지배종이 되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촌은 기후 위기로 6차 지구 대멸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별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독교가 환경 보전 사역에 뒤쳐진 이유로 내세 구원만을 앞세우는 근본주의 신학의 폐해를 끊는다. 코로나 감염 대응 과정에서 일부 교회의 일탈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신임을 크게 잃었다. 이런 대응은 몰상식과 비과학적인 종교 행태가 누적된 결과이기도 하다. 생태적 회심을 미룰수록 교회와 세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는 소외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혹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코로나19로 빈부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흠어져 일상의 영성을 살아낼 준비가 부족하다.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 청소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돌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명망(The web of life)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적 제의에서 나와 마을을 살리는, 행동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오늘날의 생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비움의 실천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에서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비우는 ‘베퓌의 잔치’가 벌어진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피조세계와 말씀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 그리스도론(Cosmic Christology)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경험하기 바란다. 미니멀 라이프, 생태마을 공동체, 지역 순환경제 구현, 지구공동체 돌봄등의 활동을 통해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간의 존재가 생명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후 증인과 탄소제로 행동

글/사진 ·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첫걸음

01 선언하기

다니는 교회내 위치나
모임 인원애 상관없이,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결심하고 선언하기

02 자가진단하기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
-개인, 삶의 생태발자국 지수
-교회, 예배, 교육, 건물, 교통,
식단, 소비, 쓰레기 등

03 실천계획 수립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교회와 사회 내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소통

《탄소제로 녹색교회 자가진단(QR코드) 확인》

나와 내 후손을 위한 선택

2022년 올해도 오미크론 변형 바이러스로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탈출을 서두르기보다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더 명료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나와 내 후손을 위한 생명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증언해야 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행하셨다. 몸은 물론 마음이 병든 이들, 아니 죽은 이들까지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 자신은 죽음을 향해 가셨지만, 결국 그 죽음조차도 부활로 바꾸셨던 분이셨다. ‘살림’은 그분의 삶 자체이었다. 코로나와 그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 바라보며, 올 한해 ‘기후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해보자. 위기가 심각하니 혼자보다는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위한 증인 공동체로서 보자.

즐겁게 할 수 있는 생명 살림

그 시작은 가까운 이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루 한 번은 하늘의 새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시는 연습을 하자. 포장에 덮인 것을 사고, 일회용품은 자제하고, 재활용 제품을 사는 것으로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자. 물건을 사기 전 있는 걸 최대한 사용하고, 쓰지 않는 물건은 공유(기증)하자. 에너지를 절약하며 불필요한 조명과 대기 전력은 차단하고, 웃은

자연 건조하고,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자.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원과 시간, 돈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 음식은 지역에서 제철에 난 것을, 채식 위주로, 최소 포장에 덜 가공된 것으로 먹자.

머무는 공간에는 크고 작은 숲과 밭을 만들어 수확물을 나눔 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을 멀리하고, 자신의 몸과 자연에 해가 덜 되는 제품을 사용하자. 여행을 계획할 때는 먼저 꼭 필요한지 묻고, 필요하다면 차는 집에 두거나 여럿이 함께 타고 가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즐기자. 필요하다면 출장도 비행기를 타는 대신 화상이나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을 취해 보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누구와 어디서부터?

전 세계가 ‘탄소중립’ 계획을 세워 화석연료 등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래도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 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 회복력을 유지하고자 1.5도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로서는 멀게만 느껴진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 7위요, 1인당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고, 전력 효율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배출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지역이 어떤 내용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세워 실천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는 저울 위에 올라가야 한다. 줄일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그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시간은 얼마나 될지, 가시적 결과를 위해서 자원과 노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목표에 이르는 진행 과정을 측정할 척도는 무엇이고, 순조로운 진행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목표지점까지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덜 절망적일 수 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 선언으로 시작하는 지구 돌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녹색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며, 자신 안에 있는 창조자의 빛을 드러냄으로 시작된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중심 그룹을 만들어, 창조물을 존중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공동체 정원을 만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숲을 조성하는 등 공동체와 함께 지구 돌봄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걸어간다면, 그렇게 한 해를 기후 증인으로 살아낸다면, 한 해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땅 지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셨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것이다.



2022 경건한 7주간 탄소음식 캠페인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교사 과정(2021년도)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글 · 전영의기자



※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부제와 함께 진행 중인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포스터

포도나무와 가지

지난 3월 12일 개강한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의 열기가 뜨겁다. 지원자 79명, 스텝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더와이즈'는 여성을 위한 강좌이다. 감사 이미경 사모는 이번 강의를 통해 '여성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원리'를 전하며, 지원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또 여성의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 그 답은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의 부제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누구이며,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미경 사모는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소개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감사 이미경 사모와 스텝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요. 나무에 꼭 붙어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힘차게 공급받고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 안에 꼭 붙어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또 자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경 사모는 말한다.

주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훈련 필요

예비 엄마, 취학을 앞둔 자녀의 어머니,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머니, 결혼 적령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어머니가 있을까. 모성은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느라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미경 사모는 자녀

를 행복하게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생명력 있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말씀과 훈련이 필요하다.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가 친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미경 사모는 지난해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마더와이즈 사역을 처음 소개했다. <자유>, <지혜>, <회복> 3가지 주제로 3차례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지원자와 스텝이 함께 했다. 올해는 한층 더 풍성해진 '마더와이즈'로 지원자들을 만나고 있다.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는 9주 과정으로 5월 7일에 종강한다. 마더와이즈 <지혜>와 <회복>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 2022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프로그램 진행 중인 이미경 사모 지원자 79명, 스텝 21명이 함께하고 있다



☞ 학교하는 학생들을 배웅하며 잠시 앵무새 조련 시범을 보여주는 장면

아침, 교장실 문을 열며

글 · 박은철(광성드림학교장)



☞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 소통하고 쉴 수 있는 유쾌한 교장실을 꿈꾼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19:14]’

“저 교장실에서 놀고 있어요.”
이젠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의 이런 말에 놀라지 않습니다. 교장실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놀이 터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학창시절 교장실은 늘 성역처럼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가까이서 보거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냥 좋아 걷게 된 교사의 길, 어느 해부터 교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자질도 형편없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임기 동안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

일 아침 등굣길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외모, 성적, 성격, 행동, 가정 환경 등이 어떠한 말입니다. 안아 주고, 등 두드려 주고,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환영의 말을 건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시간마다 학문하는 희열과 감동이 가득하고, 일마다 나눔과 베품이 흐르는 학교를 꿈꾸었습니다. 인간의 위선과 무지, 틀에 박힌 사고를 통쾌무비하게 깨트리셨던 예수님의 교육 방식, 함께 한 제자들이 늘 누렸던 잔치의 즐거움과 밥상공동체의 기쁨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실이 그런 교육적 상상력이 꽃피는 중심지요, 아지트가 되기를 바라며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에다 ‘발칙하고 유쾌한 학교교육발전소’라고 써 붙였습니다. 로알드 달의 책 ‘발칙하고 유쾌한 학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학교 공동체에 ‘자유복합문화휴게창조소통개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간 곳곳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 피규어, 장난감, 여러 나라의 장식품들을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즐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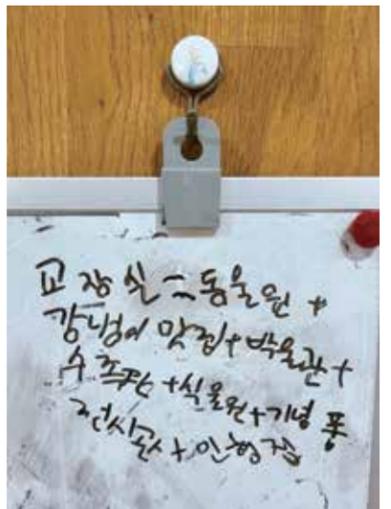
식물, 물고기, 새들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허기를 달랠 먹거리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찾아들 듯 들어오는 아이들과 수다도 떨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마음이 정화되고, 싱그러움 몸짓에 미소가 만개하고, 재기발랄함에 찬탄하곤 합니다.

이 신비한 발광체들은 저의 친구요, 스승입니다. ‘푸른 보리처럼 아이들이 쭉쭉 자라는 동안 가슴에 거름을 엮고 따듯하게 썩어가는 봄 흙이 되고 싶어요.’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구를 맘에 담아봅니다.

올봄에도 ‘거인의 정원의 거인처럼 담을 헐려고 합니다. 이 공간이 팔 벌려 아이들을 안으시던 주님의 품 닮기를 기도합니다.

눈부신 아침입니다.



☞ 교장실 문앞 화이트보드에 학생이 남기고 간 글



☞ 교장실에 단체로 몰려오기도 하는 귀여운 아이들



☞ 방학 때 학교에 놀러온 학생들과 함께 놀다가 한컷

과자 먹다가 목사가 된 이야기

글 · 김종인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날마다 함께 하는 가족, 아내 이혜민 사모와 딸 김유은

‘빈츠’를 아십니까?

과자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음식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라 과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모든 먹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롯데제과의 빈츠를 소개합니다. 2000년 11월에 출시된 빈츠는, 초콜릿과 과자가 빈반으로 합쳐져 있으며 초콜릿 면에는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과자에 비해서 조금 비싼 축에 속하며, 그만큼 맛도 훌륭합니다.

빈츠를 공짜로 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선교한국대회’에 참여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각 단체의 사역을 알아보는 선교박람회에서 몇몇 부스를 거닐고 있었을 때, 한 테이블에 이 빈츠 몇 개와 사탕 조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當時)는 당(糖)이 생각날 수 있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빈츠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스에 소복이 쌓여있는 빈츠를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함과 비스킷의 바삭한 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 얼른 먹고 자리를 이동하려던 찰나, “반갑습니다. 과자 맛있지요?”라는 한 선교사

1. 선교한국대회는 1988년부터 시작된 청년대학생 선교동원대회입니다. 1888년 미국에서 일어난 SVM(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100주년인 1988년, 한국 청년 대학생들의 선교동원을 꿈꾸던 JOY 선교회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으며 교파와 단체를 뛰어넘는 연합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대회는 2년마다 8월 초에 진행되며 약 3000~40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님의 지방 사투리가 들렸습니다. 먹튀(먹고 도망가다)를 할 수는 없고, 선교단체들에 대한 짝한 마음도 있었기에, 몇 마디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단체였는데 당시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관심 있어 하던 비즈니스선교와도 무관한 단체였기에 대화를 급히 마무리했고, 그렇게 선교한국대회도 마쳤습니다.

빈츠의 맛이 기억에서 사라질 즈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교한국대회에서 만난 선교사님인데, 서울로 파송을 받게 되었으니 한번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찌어찌하다 보니 선교단체 훈련을 받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간사 임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 괜히 과자 먹어서 이 고생을 한다.’라는 푸념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빈츠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선교단체 훈련을 통해 결국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빈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자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나만의 이야기를 함께 써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빈츠를 즐겨먹습니다

돌이켜보니 순간순간이 모여 제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삶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따금 마트나 편의점 진열대에서 빈츠를 봅니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러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웃음 짓고 계시지 않을까요?



선교한국 집회



선교한국 선교박람회 중



저를 목회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빈츠

성경적 성교육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

글·전영숙기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교육이 아닌가 싶다. 낮은 마음에 버럭 화를 내거나 얼버무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경적 성교육.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가 거룩한빛광성교회 가정사역위원회 주관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 교육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랬기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번 교육은 전국 각지에서 87명이 모여 그 열기가 뜨거웠다. 지각하는 이 없이 모든 사람이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 후에도 단독방이나 채팅창에 연이어 올라오는 질문들로 강의 예정 시간을 넘기기 일쑤이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아낌없이 공유한다.



◀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 신청 안내문



◀ 개강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수요일에 김지연 대표의 강의가 있었다

87명 참여, 시간 더할수록 교육 중요성 절실

교육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청소년 성상담, 낙태, 성매매, 페미니즘, 음란물 예방 등의 다양한 주제로 13주에 걸쳐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5시까지 강의가 이어지는데 강사 양성과정인 만큼 지각, 조퇴, 결석 관리가 철저하다. 총 강의 시간의 10%(6.5시간) 이상 결석할 경우 수료가 안 된다. 매주 화요일 보강이 이뤄지나 보강을 듣는다고 해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격증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만은 아닌 듯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묻는 이에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중3 딸이 아이가 있다 보니 성가치관을 확립할 필요를 느껴 교육을 신청했어요.”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자료는 물론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부분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강명구 안수집사(초등6부 교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13주의 짬을 기꺼이 만들어냈다. 게다가 직장생활로 신청을 못해 아쉬워하는 아내에게 전파 교육도 하고 있다.

매시간 과제로 주어지는 영상을 본 후, 문제경 씨(파주시 검산동)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김지연 강사님의 강의를 들 때마다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리되고 희미하던 것들이 명쾌해져서 감사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도 이 훈련을 받고 강사님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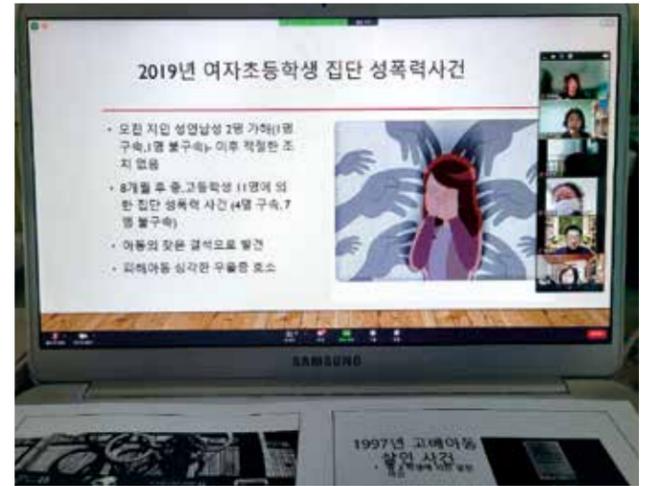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 수료자에게는 (사)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발급하는 통합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과 성폭력예방지도사 과정 수료증이 주어져 관련 연구소 창업이나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성교육, 전문가만 아닌 '바로 내가 하는 거'

“그동안 진행되던 성교육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길로 뛰어드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우려 속에서 교계나 성도들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책까지 쓰게 되었으며 강의를 넘어 강사 양성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이랩 성가치관 아카데미의 주 강사이며 이를 진행하는 (사)한국가족보건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지연 대표의 본업은 약사였다.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성경적 성교육에 몰입한 것은 잘못된 성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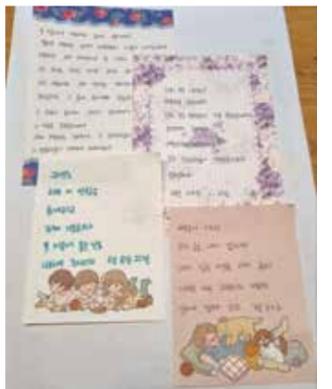
◀ 성상담에 대한 김은숙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자들



육을 반대만 하기보다 원형을 제시해서 생명과 가정, 문화명령,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그대로 살아내고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하지 않은 사이에 세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는데 늦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많은 이들이 끝났다고 할 때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에이랩 수료생들이 설립한 성교육단체가 200여 개가 넘어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양육자인 바로 내가 하는 거야’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김 대표는 다음세대를 위한 성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는 물론 모든 영적 양육자까지도 함께 나가자고 힘주어 말한다. 일반화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같이 한다면 분명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리라.



◀ 첫 강의 후 '성경 써서 붙이기' 과제를 수행한 수강자의 인증샷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교회

글 · 김용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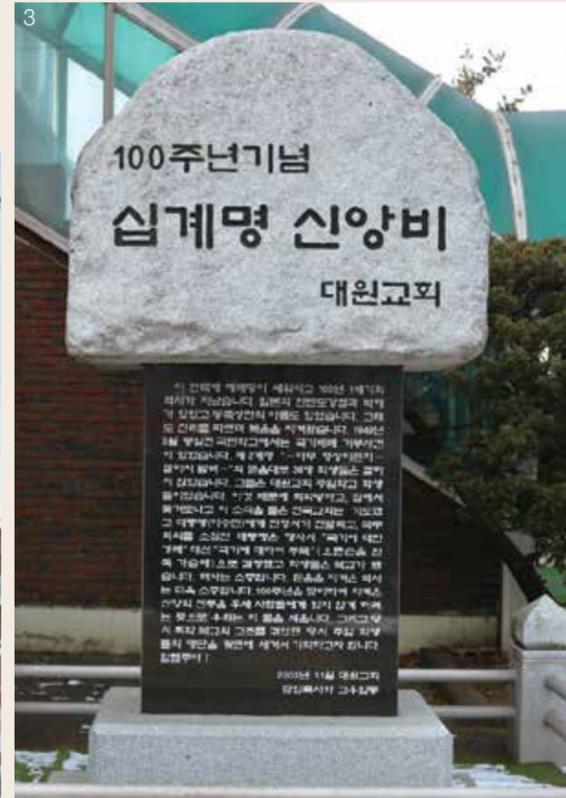
믿음의 흔적을 간직한 파주 최초의 초대교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장로교회는 파주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이다. 1901년 죽원리에 설립된 교회가 1957년 지명이 변경되며 대원교회(담임목사 김현근)로 개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죽원리에 살던 이순호 씨의 전도로 기도경, 임봉준, 배영윤, 김경재, 송석현, 송태근 등 마을주민이 복음을 접하고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웠다.

1904년에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가 대원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며 지역에 전도가 이뤄져 교인 수가 50명이 넘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1905년에는 죽원 1리에 20평 규모의 목조 예배당을 건립하며 지역 교회로서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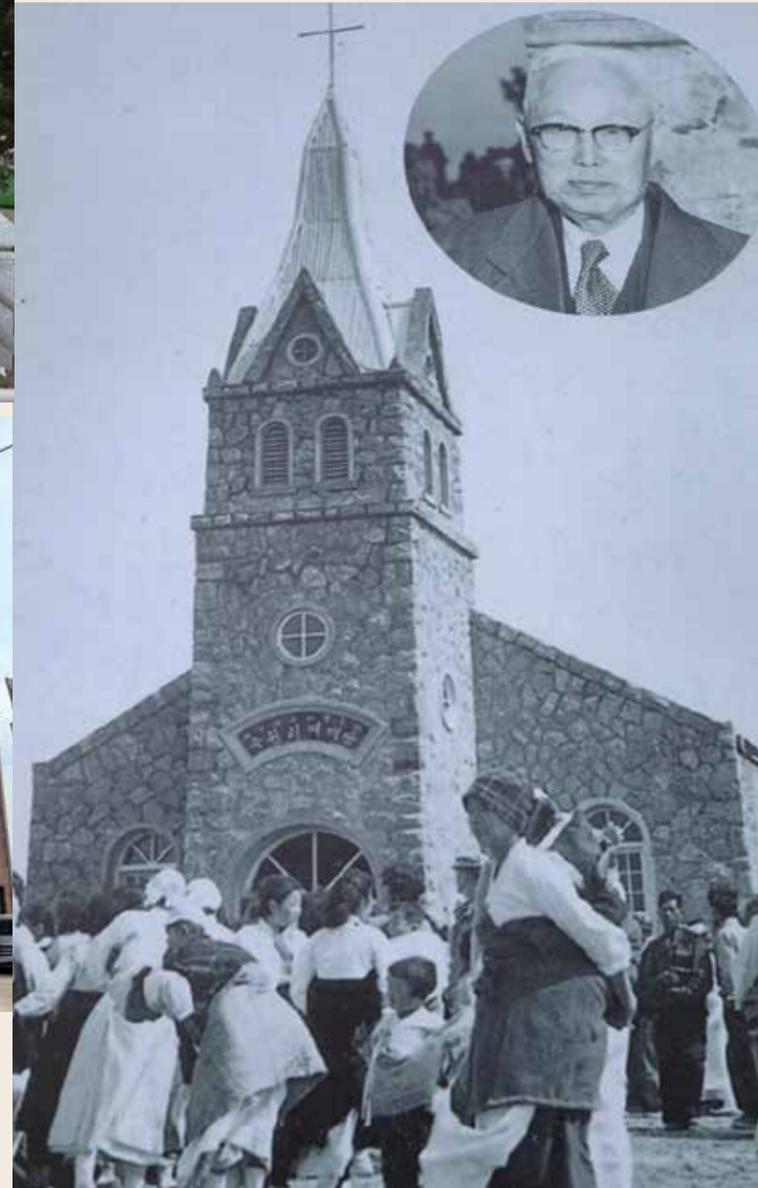
1. 대원교회는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지어준 석조 건물의 기초위에 벽돌로 개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대원교회는 오래된 교회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며 옆에 현대식 교육관을 지어 121년의 교회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
3. 교회 앞에서 있는 100주년 기념비에는 1948년 국기에 대해 배례를 하지 않아 퇴학 처분을 받았던 사건과 봉일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국기에 대한 절 거부로 믿음 지켜

일본의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 온 대원교회가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1949년 3월 주일학교에 출석하던 36명의 봉일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국기에 대한 배례를 거부해 퇴학 처분을 받은 것.

1948년 정부 수립 후 애국심을 강조하던 당시에는 학교에서 조희시간에 국기를 향해 절을 하는 국기 배례 의식이 있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조회에 참석한 남준호 등 36명의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십계명 제2계명인 “아무 형상에든지 ~ 절하지 말며”란 말씀을 떠올리며 국기를 향해 절을 하지 않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일부 아



※ 1948년 국기에 대한 배례 때 절을 하지 않아 퇴학 조치를 받았던 당시의 대원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모습

이들은 집에서 쫓겨나 교회에 머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 소식은 전국 교회로 알려져 기도 운동으로 퍼져나갔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진정서가 전달되었다. 소식을 접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행사 시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 국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물론 퇴교를 당했던 36명의 아이들도 모두 복교되었다.

전쟁 중 미군이 지어준 교회 건물 지금도 유지

대원교회에는 건물에 대한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오래된 옛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원교회의 아랫부분은 석조건축물로 그 위에 붉은 벽돌로 쌓아 올려 오랜 역사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폭격을 맞아 교회가 소실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이본 미군 185 공병대와 미군 제7수송대가 협력해 1953년 10월 석조건물로 60평 규모의 교회를 새로 지어 마을에 기증했다. 여기에 교회가 커지며 교회당을 개축할 때 미군이 쌓아 준 석조 건물의 일부 벽을 살려 그 위에 벽돌 건물을 올리며 지금의 교회 모습을 갖추었다.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대원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전통뿐만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초대교회이다. 파주 지역의 기독교 문화의 보고로 남아 있는 대원교회는 상지교회, 가나안교회 등 인근 지역의 교회 설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지역 복음화에 모체로서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 1950년 10월 한국전쟁 중에 소실된 교회의 자리에 미군의 도움으로 석조 건물로 된 교회를 새로 지어 봉헌예배를 드렸다

느헤미야 Nehemiah

글 · 김은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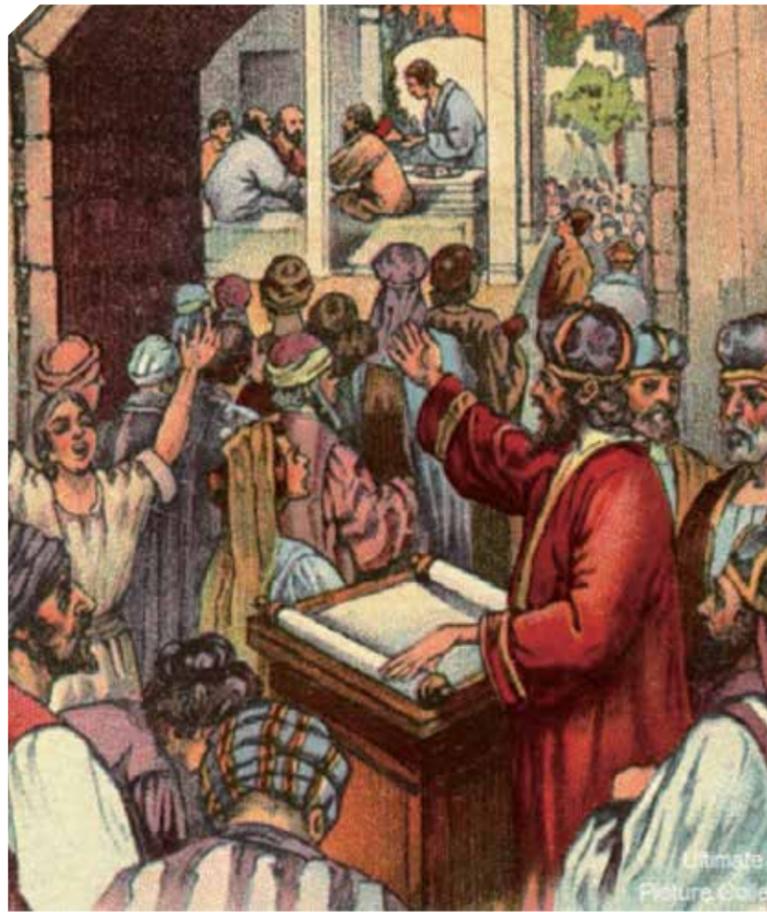
구약 성경 중 「느헤미야」서의 저자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라의 아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바사의 이닥사스다 왕 궁정에서 술 관원장으로 일했다. 이 서(書)의 저작 연대는 B.C. 420년 경으로 추정된다.

그는 타국에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 파괴와 동족의 환난 등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느1:1-3) 슬퍼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심에 찬 그의 얼굴을 본 왕이 연유를 물으니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수할 수 있도록 고국으로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왕은 이를 듣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B.C.445-425) 장교와 기병 부대와 자제들도 지원하며 귀환하도록 허락했다. 이를 통해 온전히 조국에 대한 염려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펼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백성들은 찬성했으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등 일부 대적들은 이를 비웃으며 반대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유능한 감독이었다. 그는 구간별로 40여 명의 책임자를 두고 분야별로, 조직적으로 성을 중수해 나갔다. 날이 갈수록 적들의 반대와 훼방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여 한 손엔 장비를, 한 손엔 병기를 잡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를 보며 공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오직 백성의 부역을 중하게 여겼다.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 5:19]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고 모함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몄으나(6:1-9) 그는 갖은 음해와 모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자신을 재무장하여 사탄의 계락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느헤미야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지 오십일이 된 날, 예루살렘 성이 훼파된 지 154년 만에(B.C.586-B.C.432) 성이 완공되어 백성들은 성벽을 돌며 찬송하며 봉헌했으니 이날이 B.C.444년 6월 25일이었다. '이를 보고 놀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다(6:16)'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나 이를 반대하며 훼방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느헤미야는 몸소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방해 요건이 늘어나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때, 우리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굳건히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 뿌린
제1호 한국인 선교사

글 · 강연홍 목사(제주성내교회)

제주성내교회 스케치



2008년에 세운 100주년 기념비

1907년 제주항 근초 한 초기집에서 시작해 1910년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제주성내교회 전경

이기풍

제주도에 복음의 씨앗 뿌린 제1호 한국인 선교사

글 · 강연홍 목사(제주성내교회)

제주 선교를 말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야 한다. 김재원 장로(1846~1846)와 이기풍 목사(1868~1942)이다. 김재원 장로는 제주시 이호리에서 복음의 물줄기를 일으켰고, 이기풍 목사는 평양에서 복음의 물줄기를 일으켰다. 그 두 물줄기가 1907년 2월, 제주 성내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오늘의 제주성내교회가 세워지고 제주의 500여 개 교회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강연홍 목사



1	2
	3

1. 이기풍 목사 제주 부임 기념사진. 부인 윤함애 시모, 딸 이사례 권사
2. 1910년대의 교회당 모습. 이기풍 목사(오른쪽)와 철종의 부마였던 박영호 대감(왼쪽)
3.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제1회 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사진. 이기풍 목사 제주 선교사 파송 기념이기도 하다

김재원 장로¹

1878년 10월 제주도 제주군 제주면 이호리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김진철과 김인애 사이에서 3남 2녀 중 큰아들로 태어난 김재원은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막막염처럼 배가 크게 부어오르는 병에 걸린다. 부친은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의료선교사 올리버 에비슨이 사역하고 있는 제중원(현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병을 치료받은 김재원은 제주 사람 중 최초로 세례받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한양에서 서상륜의 양육을 받게 되었다.

김재원은 제주도 이호리로 돌아와 그가 가지고 온 쪽 복음서(마태복음)로 전도를 시작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들어 올려 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죽다가 살아난 자신의 일을 간증하면서 전도했다. 이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평신도로서는 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급기야 자신에게 치료와 세례를 베푼 에비슨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주도에 목회자를 파송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전도도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기풍, 제1호 해외선교사

한편,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독노회를 창립하면서 제1회 독노회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에비슨 선교사가 노회석상에서 이 편지 내용을 안건으로 붙였다. 독노회에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인²이 장로교 목사로 첫 인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기풍 목사가 있었다. 제주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이기풍 목사는 그 다음날 자원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호 해외선교사로 파송된다.

1. 김 장로는 1909년부터 성내교회에서 영수로 교회를 섬기다 1917년 당회가 조직되며 홍순홍과 함께 제주 최초의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2. 김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린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이기풍 목사의 선교 발자취

이기풍 목사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한학을 공부한 한량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괄괄한 성격으로 싸움과 술을 좋아해서 젊은 날을 허송세월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을 박해했다. 특히 그는 1890년 어느 날 평양 서문동 네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사무엘 미펏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 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원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원산에서도 그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등 못된 짓을 골라 했다. 그러던 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전군보'라는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한 것이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그 후에 미펏 선교사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1894년 스왈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1898년부터 매서인 자격으로 함경도 일대에서 성경 반포·전도 사업을 했다. 이후 미펏 목사의 권고를 받아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인 중의 한 사람으로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그가 졸업하던 해에 장로 교단의 효시인 독노회가 조직되었다. 독노회에서는 그가 남다른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제주 전도에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를 제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기풍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임명되어 제주도로 떠나게 된 것이다.³

한편 이때는 이미 정부가 기독교의 선교를 허락했지만 1899년의 신축교년⁴으로 제주도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은 가혹하기 그지없을 때였다. 총회에서는 그를 돕기 위해 전도인 이선광과 김홍련을 파송했다. 이후 제주도 선교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11년 10월 전라노회가 결성되고 제주도는 1912년부터 전라노회 관할이 되었다. 이기풍 목사 일행은 주민들의 온갖 핍박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제주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⁵

풍토병으로 인해 1915년경 호남지방으로 휴양차 잠시 제주를 떠나기도 하고, 1918년 전라노회의 부름에 따라 광주 북문안교회 초대 목사로 전임되기도 했지만 그는 제주 선교에 늘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1920년 전라노회장 및 총회 부총회장에 당선되었고 1921년 제10대 총회장을 역임했다. 1923년 그는 다시 전남 순천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 부임했고 1924년 고흥교회로 전임되었고 1927년 다시 제주도 성내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다시 제주도에 부임했다.⁶ 1933년에는 전남 벌교교회로 파송되었고 1934년에는 철순의 노구를 이끌고 아무도 가지 싫어하는 도서벽지 여수군 남면 우학리 작은 섬에 복음을 전파하려 들어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기풍은 돌산, 완도 등지의 도서지방으로 순회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완강히 거부하며 호남지방 교회 지도자들과 연대, 반대 투쟁을 하다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942년에 소천했다.



1. 이기풍 목사의 딸 이사례 권사가 어린 시절 올라가 전도하던 부모님을 기다렸다는 맹나무
2. 이기풍 목사와 김재원 장로 선교 공적비
3. 1927년 제주성내교회 두 번째 부임 후 이기풍 선교사가 사용했던 강대상
4. 1917년 작성된 제1회 당회록 부조
5. 제주시에서 성내교회가 제주의 최초 교회임을 확인한 비문



3.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모든 장로 교단들은 매년 2월 첫 주일을 해외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다.
 4.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한다. 봉세관의 조세 수탈과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회의 폐단에 반대하여 제주도 민중들이 투쟁한 제주도 민중항쟁이다.
 5. 이기풍 목사는 제주성내교회(성안교회, 동부교회)와 금성교회, 모슬포교회, 성읍교회, 조천교회, 용수교회, 삼양교회, 중문교회, 한림교회, 법환교회, 세화교회를 개척했다.
 6. 현재 제주성내교회는 이 목사가 2번째 제주성내교회 목회 시에 사용하셨던 강대상을 보존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포문을 열다

글·전영숙기자

매년 1월은 설렘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무언가 기대감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팬데믹으로 보다 조심스럽게 시작하긴 했지만 교회학교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2022년의 포문을 연 교회학교들의 각오와 활동을 살펴보았다.

성령의 바람으로 고등부의 바람을 이어가다

“고등부에서는 코로나의 광풍보다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바람을 담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의 나침반’이라 여기고 우선 1월부터 사복음서 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성경통독 캠프-예수와 바울’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마친 뒤 기세를 몰아 2월에 제자훈련에 돌입했지요.”

작년 12월부터 2022년을 준비했는데 1월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김환 전도사는 1년 계획으로 세운 성경 읽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개역개정 성경을 어려워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메시지 성경 미니북을 전체에게 나눠주고 매주 정해진 분량을 공지하고 통독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도 제공하고 있다. 성경을 읽는 색다른 방법인 에끌툰(기독교웹툰플랫폼)을 이용해 가벼운 웹툰으로 성경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공모전(독후감, 웹툰)도 진행해 푸짐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설교 또한 각 복음서의 사건들을 차근차근 다루면서 1년간 입체적인 복음서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	2
---	---

1. 고등부에서 새학기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다함께 놀자 동네 한바퀴'에 참여한 모습
2. '성경 통독 캠프'로 진행된 고등부 겨울 수련회

성경 읽기의 연장선으로 지난 1월 21일과 22일, 겨울수련회를 성경통독캠프로 진행한 고등부는 20명의 소수 정예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당에서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읽어가면서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게 읽을 수 있었다.

길어진 팬데믹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웃팅(반별 친교모임)을 실시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여 동안 진행되었는데 김 전도사는 ‘덕분에 1학년 학생들이 고등부에 잘 정착하고, 오랜 공백으로 서먹해질 뻔한 2, 3학년들도 많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중등부, '정주행'의 첫발을 내딛다

2022년을 맞아 중등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것은 '성경 정주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성을 다해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중등부!'의 줄임말이다. 정주행이란 웹툰이나 드라마가 완결된 후 한 번에 몰아서 집중해 본다는 의미인데, 성경 정주행은 완결이 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

터 끝까지 집중하여 다룬다는 의미로 잡은 교육 콘셉트다. “물론 1년 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기에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주제로 잡았어요. 중등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의 맥을 짚어가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주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중등부로 이끌어가겠다는 최성직 목사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사사기부터 정주행에 들어가면서 중등부가 보다 강화한 것은 지파별 줌 모임이다. 성전예배나 온라인예배를 드린 학생 모두가 줌에서 모여 매주 주일 말씀과 관련된 온라인 공과를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

특히 2월엔 '우리 지금 만나-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겨울수련회를 진행함으로써 정주행에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오픈아이스 뮤지컬, 가수 이미셀 간증과 찬양, 줌 성경퀴즈대회 등으로 이어진 겨울수련회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친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초등5부

초등5부를 맡고 있는 이재광 전도사는 매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초등5부 아이들과 함께 나눌까?'라는 질문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2022년 질문의 답은 '함께'라는 단어였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표어 아래 혼자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정했다. 그런 만큼 초등5부에게 1월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과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처음 보는 선생님, 새롭게 반이 된 친구들과 함께 어색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이나 Q카드를 활용한 반별 모임 등의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색함이 사라지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바로 직행 초등5부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말씀 암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월 26일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겨울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이어 3월에는 사순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반별 말씀 쓰기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라 2022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새로운 시작인 만큼 이 전도사는 "다음이라 불리는 세대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초등5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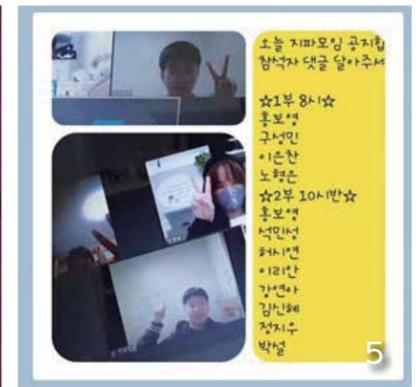
- | | | |
|---|---|---|
| 1 | 2 | 1. 초등5부의 성전 예배 모습 |
| 3 | | 2. 새학기의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친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초등5부 |
| | | 3.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초등3부 학생들 |

- | | | |
|---|---|---|
| 4 | 5 | 4. 중등부 수련회 안내 포스터 |
| 6 | | 5. 중등부의 온라인 지파모임은 온오프예배자 모두를 화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 | | 6. 온라인으로 실시된 초등3부의 겨울성경학교 모습 |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에 힘쓰는 초등3부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초등3부는 2022년 미션 수행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초등3부를 맡고 있는 방성빈 전도사는 매주 총회 공과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하고 미션 수행 후엔 선생님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라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건 2월 12일과 13일에 있었던 겨울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해야 했기에 '좋은 땅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면서도 지

루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많은 회의를 하며 준비했어요. 감사하게도 아이들 대부분이 온라인 학습과 소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한 듯해 기뻐요." 첫날은 설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둘째 날 이를 확인해 봤는데 학생들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방 전도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고백이 자연스레 나왔다면서 이어갈 행사에도 자신감을 표했다.



2022 거룩한빛광성교회 # 3대 키워드

#가정예배 #다음세대 #리더십

코람데오 가정예배

꿈꾸는 다음세대

섬김의 리더십



#가정예배
#다음세대
#리더십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키워드

고결, 고건, 고산, 고솔 4남매와 함께 가정예배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글·사진 윤지나, 고병수 집사

일찍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연년생 3남 1녀의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현장 예배가 멈춰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거룩한빛광성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빛가득금요기도회와 주일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이 은혜로 가정에서는 매일 30분씩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2021년부터 원텐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토록 소원하던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나눔과 기도와 함께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온 가족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정예배 드리자는 말을 안 하면 아이 중 한 명이 꼭 “우리 예배 언제 드려요?”. “드려야죠!”라고 합니다.

또 한 아이가 나눔 시간에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잘하고 있으니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계속해 나가라고 응원해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한번은 금요일예배 때 둘째인 중 2녀석이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해서 들었는데 눈물이 났고,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막내 아이는 성경 통독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계속 생각난다고 합니다. 큰아이가 “동생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솔직한 고백과 대화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모든 것이 가정예배의 축복입니다.



⊃ 2021년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 소원하던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었다



⊃ 늘 좌충우돌이지만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가정예배
#다음세대
#리더십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키워드

말씀 속에 들어가 신나게 뛰어노는 유치부

글 박주은 전도사(유치부)

새롭고 벅찬의 연속, 유치부 예배

모두에게 혼란의 시간이었던 2021년, 유치부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성전 예배를 2021년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방역수칙에 맞추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맡겨진 자리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세워가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매주 새롭고, 벅찬 일입니다.

쑥쑥 자라나는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는 태어나서 만 6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유아기' 시절을 보내는 6, 7세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뇌와 신경계가 성숙해지고 새로운 운동 기술과 인지능력이 발달하며 특별히 언어를 통한 인지발달과 놀이를 통한 사회정서가 뛰어나게 발전합니다. 나아가 신앙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아이들은 영아기 때 쌓은 기본적인

믿음을 토대로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형성해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예배가 필요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현장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의 예배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유치부 예배는 아이들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르게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신나게 뛰어노고, 체험하며 말씀 속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상상하고 질문하며 대화할 수 있는 '참여형 설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이러한 마음에 공감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시선으로 소통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유치부는 매주, 매 순간의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는 겸손함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향해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 '노아의 방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념 촬영

#가정예배
#다음세대
#리더십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키워드

제1기 온라인 제자훈련을 마치며

글 최복순 장로

제1기 온라인 제자훈련을 통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중 제가 받은 많은 은혜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②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과 같이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만이 가능하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③ 변장된 축복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으며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방법으로 훈련 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④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⑤ 항상 말에 실수가 없기를 소망했는데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⑥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웃어주고 섬기니 화목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받은 많은 은혜가 저의 삶에 적용되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온라인과 줌으로 진행된 제1차 온라인 제자훈련



≡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다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는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묻어 있는 가족송입니다. 가정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반주한 찬송가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떠들떠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를 반주하자 가족 모두가 힘차게 박수를 보내주었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는 우리 가족의 가정예배 시작송이 되었고 최고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6명은 교회 '가족 찬송가 대회'에서도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를 합창해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4남매를 앞세우고 성도들 앞에 서서 자랑스러워하셨던 우리 아빠!

아빠는 2020년 3월 천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발인 예배 때 우리 가족은 손녀딸의 클라리넷 반주에 맞춰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를 불러드리며 아빠와 이별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도 늘 흥얼거리실 찬송가 559장!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즐겁고 즐거운 하루하루~'.
559장의 찬양이 우리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는 오늘도 예수님만 섬기며 달려갑니다.



글 박혜성 권사(광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청년광장





청년이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같이 걸자!'

글 이홍균(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회장)



청년 이홍균

안녕하세요.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된 청년회장 이홍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군대를 막 제대한 스물셋,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청년부를 돌아보며

팀 모임과 셀 모임, 그리고 매년 행하던 여름 사역들이 생각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었던 팀 모임과 셀 모임,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떠난 해외단기선교와 일손이 필요한 농촌을 찾아 농사일을 돕던 국내선교가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교지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청년부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빼놓지 않았던 청년부 국내외 선교가 멈추었고, 모든 팀 모임과 셀 모임 또한 온라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교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현장 교제처럼 깊은 교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한 관계 단절이 발생하고 우울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는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어려움

저 또한 주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회사에서 생활하다 주일예배와 팀 모임, 셀 모임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에게 깊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것이 믿음의 끈으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라는 거짓된 메시지가 저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공동체로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가 수시로 저를 공격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심장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면 생기는 따뜻한 힘이 저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청년부 줌 모임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리던 차를 멈추고 도로 한 편에서, 때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줌 모임을 통해 주일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것은 거칠고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청년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같이 걸자' 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룩한빛광성청년' 공동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회복하며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비대면과 대면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에 모두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금 교회 안에서 팀 모임과 셀 모임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맛보면 좋겠습니다.

≡ 청년부 겨울사경회 주제 '같이 걸자'

≡ 겨울사경회가 진행된 2월 한달간 매일 청년부에게 전달된 영상 큐티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 교사 사역

저는 초등5부 교사입니다

글: 김신영(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2022년 초등5부에서 교사 사역을 시작한 김신영입니다. 현재 저는 초등5부 한 반의 담임이며 찬양교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도 못 부르고 심지어 교회에서 정식 선생님이로 사역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설령 벽에 막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찬양교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모든 것이 처음인지만 막막하고 무서웠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주변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집부리고 귀찮게 하고...

저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모르지만 그저 이 상황이, 이 일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하다 보면 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처음엔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 둘 퍼즐을 맞춰가면서 틀을 구축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뼈대를 만들고 기둥을 만드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귀찮음을 이유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 초등부 교사에 지원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다면 후회했을 것입니다.



1. 초등5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2. 초등5부 예배 진행 중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보다 더 즐거운 곳으로 느낄 수 있을까?'

아이들도 웃고 선생님들도 웃으면서 오늘 찬양과 진행이 좋았다고 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아지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저의 행동으로 웃음소리가 들리고 활기찬 소리가 들리면 저도 보람차고 힘이 납니다. 돌아오는 주 일에는 새로운 악기와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 또한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초등 5부를 위해, 또한 교회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청년 선생님들을 응원해주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 교사 사역

사랑어린이부 교사, 행복한 6년

글: 심율리(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에 다니면서 막연히 '교회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수화로 봉헌 송을 하는 사랑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곳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랑어린이부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여전히 사랑어린이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좋은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분에 사랑어린이부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가득 쌓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작은 소리를 좋아하는 아이, 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촉각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 등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른 개성 넘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사랑어린이부이기에 매주가 새롭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한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다양한 체험을 했던 세만기(세상만나기)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민들레 실 한 칸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며 올해는 꼭 다시 같이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우리 아이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부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어린이부뿐만 아니라 사랑부 모든 아이들이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받고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사랑어린이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속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사랑어린이부 예배 중
2. 사랑어린이부 예배 중
3. 2019 사랑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단체사진



인테리어 사장님 누구나 다 실수를 한다

글 박지석(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사장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한 네온간판과 식물. 얼마 후 사장님과 손발을 맞출 만큼 내 인테리어 실력도 성장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교회에 올라온 공고 덕분에 운 좋게도 실내조경 및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1톤 트럭에 짐을 싣는 것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사장님이 원하는 재료를 전달하고, 조화를 이용해서 회색 벽에 생기를 넣어주고, 고객들이 원하는 자연경관을 연출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일들을 했다.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나는 일에 서툴렀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다. 어떤 일을 하든 '이거 잘못했다고 혼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다. 하는 일마다 겁이 나고 만지기만 해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쉬운 일조차 머뭇거렸다. 일 앞에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사장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다 힘들어.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실수들을 숨기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실수의 원인을 깨닫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봐.”

내가 인테리어 일에 처음인 것을 사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실수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실수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

했고 점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사장님께서도 그런 나를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믿어주셨다. 어느덧 나의 인테리어 실력은 점점 성장했고, 사장님과의 손발이 척척 맞아갔다.

지금은 사장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때 사장님께 받았던 따뜻한 격려와 믿음은 무슨 일을 하든 큰 힘이 되고 있다.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용기와 실수를 피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일터로 나선다.



⋈ 조화 식물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경우 작은 부쉬뿐만 아니라 덩굴이나 가랜드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화를 이용한다



문화산책

고향 이야기

작가노트

분주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렸던 추억 속으로의 여행은 지치고 피곤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해줄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진들은 모두 저와 연관이 있습니다.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점묘법으로 묘사하고, 어릴 적 느낀 아름다운 추억을 청색, 노랑, 흰색, 초록색 아크릴과 혼합채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정영모
개인전 41회
· 쾰른 아트 페어(독일)
· KIAF/11 서울(COEX)
· 현) 국제 IAPMA KAMA
고양미술협회원,
한국미술협회원



향기를 팔지 않는 고고함, 매화꽃차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죽도 하다마는
춘설이 분분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글/사진 김규리(꽃차 소믈리에)

조선시대 가사집 '청구영언'에 실려있는 매화타령의 1마루이다. 매화는 눈발이 흩날리는 1월부터 봉오리를 부풀리기 시작한다. 남도에서 매화는 말 그대로 설중매(雪中梅)이다. 윗지방에서는 3월이 되어서야 매화꽃을 볼 수가 있다.

겨울의 상징인 동백꽃과 매화꽃은 그런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물론 꽃이 주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겨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인들과 묵객들의 단골 메뉴가 된 것은 삼동의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꽃을 피우는 정신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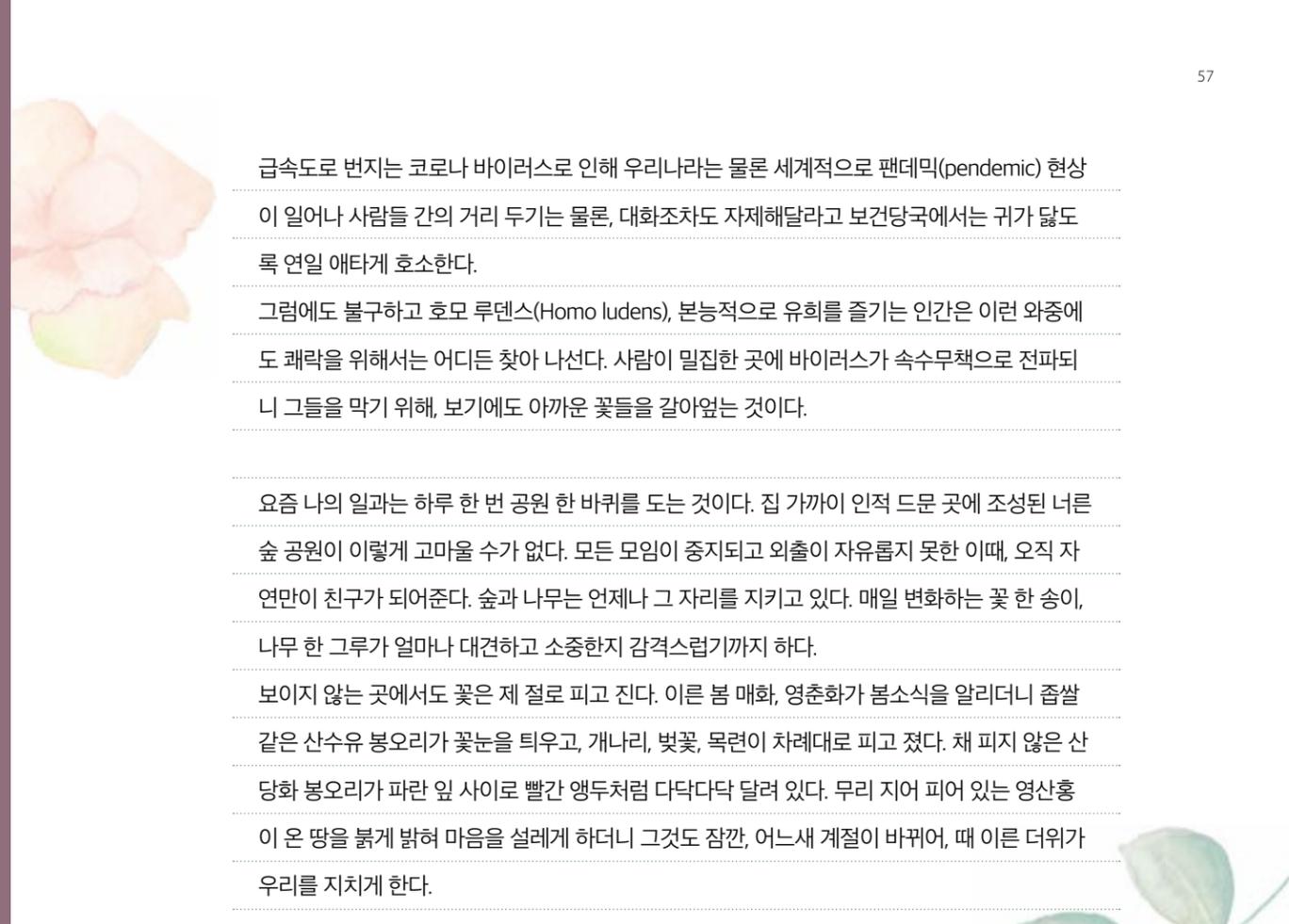
중국 사천성이 원산지인 매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선비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사군자의 첫머리에 꼽히고 또한 '세한삼우 송죽매'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매화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멋이자 문화를 대표했다.

매화나무를 선물로 받은 이황의 매화 사랑은 대단하여 70세에 세상을 떠날 때 유언하기를 "저 매화나무에 물을 주라."라고 했을까.

그런 향기 그윽한 매화꽃으로 차를 만들어 마신다면 얼마나 향기 분분히 날리는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까 하여, 가슴이 뚫다.

매화꽃차는 생 꽃으로도 가능하다. 두세 송이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 2~3분 기다리면 매화꽃이 머금고 있는 향을 천천히 쏟아놓을 것이다. 그런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맑아질 것이다





그래도 꽃은 핀다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온갖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와도 그 신비를 느낄 여유도 없이 세상은 하 수상하기만 하다.

봄의 한가운데서 제주도에서는 축구장 10배 크기의 유채꽃밭을 트랙터가 갈아엎어 버렸다. 황홀하도 록 섯노란 꽃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날 휴짓조각처럼 거대한 기계의 바퀴 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이웃 나라 일본의 한 지방에서는 80만 송이의 오색찬란한 튜립꽃밭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다. 뉴스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외마디 탄식이 흘러나왔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송이마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바람과 햇볕을 견뎌왔을 저 아름다운 생명들을 꼭 저렇게 갈아엎어야만 했을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는 인간의 인과응보이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는 물론, 대화조차도 자제해달라고 보건당국에서는 귀가 닳도록 연일 애타게 호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본능적으로 유희를 즐기는 인간은 이런 와중에도 쾌락을 위해서는 어디든 찾아 나선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 바이러스가 속수무책으로 전파되니 그들을 막기 위해, 보기에든 가까운 꽃들을 갈아엎는 것이다.

요즘 나의 일과는 하루 한 번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것이다. 집 가까이 인적 드문 곳에 조성된 너른 숲 공원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모든 모임이 중지되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 오직 자연만이 친구가 되어준다. 숲과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일 변화하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대견하고 소중한지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꽃은 제 절로 피고 진다. 이른 봄 매화, 영춘화가 봄소식을 알리더니 좁쌀 같은 산수유 봉오리가 꽃눈을 틔우고, 개나리, 벚꽃, 목련이 차례대로 피고 졌다. 채 피지 않은 산당화 봉오리가 파란 잎 사이로 빨간 앵두처럼 다닥다닥 달려 있다. 무리 지어 피어 있는 영산홍이 온 땅을 붉게 밝혀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그것도 잠깐,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때 이른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세균과의 전쟁으로 일상을 멈춘 채 허릴없이 한 해 두 해 세월만 보내고 있다.

붉은 장미 넝쿨 사이로 산딸나무, 층층나무의 흰 꽃들이 말을 걸고 있다.

“고맙다, 꽃들아, 나무들아.”

오늘도 나는 녹음 질어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며 이 혼란한 시국이 어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 탐스럽고 청아한 꽃잎을 가진 산딸나무



이 영화는 윌리엄 폴 영(William Paul Young)의 소설 『오두막』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맥은 단란한 가정의 아버지다. 맥의 아내는 하나님을 ‘파파’라 부르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내 댄에 의해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원로 교인인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키워왔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기 때문에 혈육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맥도 그 영향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 그런 맥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진다. 막내 딸 미시가 연쇄살인범에 의해 납치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저 낡은 오두막에서 옷가지만이 발견되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맥은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한다. 그러는 사이 맥의 가족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맥은 ‘파파’로부터 딸의 옷가지가 발견된 오두막으로 오라는 초대장을 받는다. 어쩌면 딸을 살해한 범인이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맥은 총 한 자루를 들고 오두막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살인범이 아닌 파파, 하나님이였다. 맥은 딸의 고통을 막지 못하고 외면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런 그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자유분방한 젊은이의 모습을 한 예수님, 차분하게 위로를 건네는 젊은 여성으로 등장한 성령님과 주말을 보내면서 차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끝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영화 ‘오두막’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글강혜미 기자

사랑은 관계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행복으로의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맥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중년의 흑인 여성 엘루시아로 묘사되는데 이를 의아해하는 맥에게 엘루시아는 “자네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당장은... 아버지 모습은 좀 부담되겠다 싶었지.”라는 말을 건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영화를 벗어난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언젠가는 친절함을 베푸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테다.

과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엘루시아는 맥에게 “자네 인생의 근본적인 흠은 나를 선함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맥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애쓰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딸아이를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외면한 거라고 여겼던 맥에게 그 말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었다.

우리도 종종 고통과 마주하곤 한다. 맥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우울함 속에 갇혀 감정적인 고통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찾아와 신체적인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당신의 아들을 고통 속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받으셨다.

예수님의 인도로 지혜를 만난 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인 엘루시아에게 사과의 말을 건넨다. 너무 원망만 해서 죄송하다고. 미처 몰랐다는 말과 함께. 우리도 부디 고통이 우릴 잠식하도록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영화 속 엘루시아의 대사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난 말할 수 없이 큰 비극에서 놀랍도록 좋은 일을 끌어낼 수 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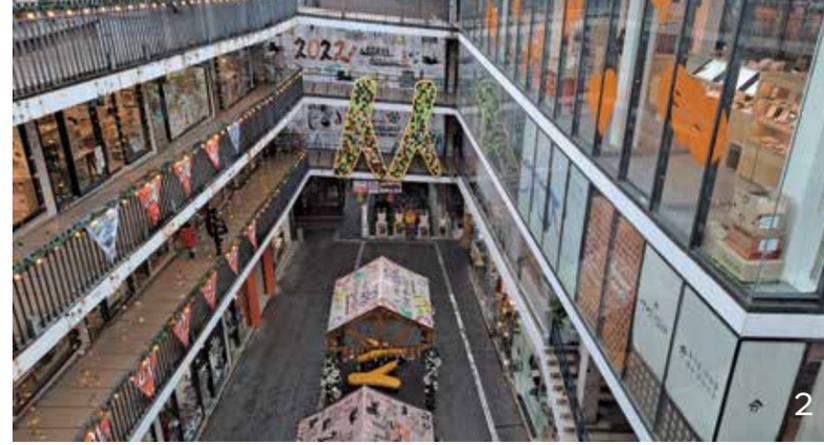




‘나의 별을 찾아 걷는 마음 여행’ 4 20년 만의 인사동 산책 전통문화의 거리-쌈지길-경인미술관-운현궁

글/사진 전영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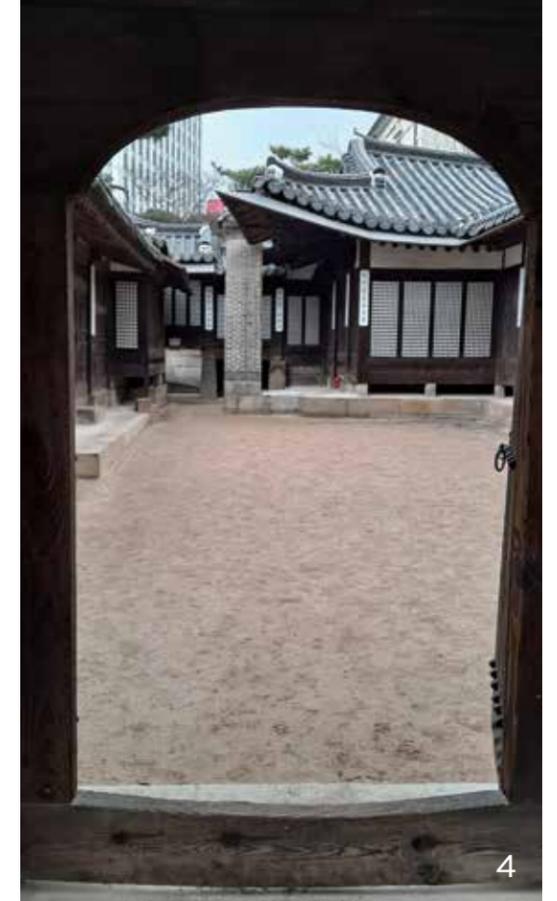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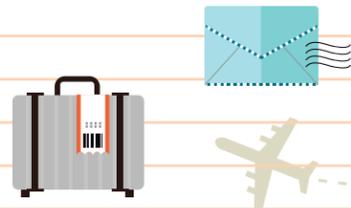
4

‘설레지 않는 것 모두 버리기!’

2022년 꿈을 그리면서 전제한 것이다.

그동안 이것저것 끌어안아 한없이 비대해졌다. 설레지 않는 것을
퍼내고 그 자리에 설레는 것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1주1세1글’이다.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을 걷고, 그것을 글로 쓰는
‘1주1세1글’은 ‘나의 별을 찾아 걷는 마음 여행’이다.

이번에 걷은 곳은 인사동이다.



추억

인사동을 다시 찾은 건 20년 만이다. 가끔 스치기는 했지만 발을 디터 인
사동을 걷고 보고 먹고 이야기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걷기는 20년 만이다.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화방, 갤러리, 골동품 가게, 전통찻집 등
이 준비한 전통문화의 거리는 걷기만 해도 예술의 향기를 입는 것 같다.
호랑이 그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화방 앞에 서니 기자였던 20대의 어느
날이 생각났다. 딱 이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곳 어느 화랑에서 호랑
이 그림 전문 화백을 인터뷰했었다. 인터뷰 후 화백은 나의 이미지를 투영
한 호랑이 초상화를 그려 선물로 주면서 말했다.
“잘 두면 돈이 될 겁니다.”

호랑이 초상화는 이사 다닐 때 몇 차례 동행했지만 10여 년 전 지금의 집
으로 이사오면서 나는 작별을 고했다. 두리번거리 보지만 화백을 인터뷰
했던 화랑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1	2	4
	3	

1. 전통차를 마시며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경인미술관
2. 패션, 도자기, 인테리어 소품, 생활 용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즐비한 쌈지길
3. 그림, 휴대폰 케이스, 가방 등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는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 소품 샵
4. 문 안쪽에 흥선대원군의 거처였던 노안당 전각이 보인다. 궁궐 못지않은 엄숙함을 지닌 노안당, 그 출입문 또한 아름답다

큰 그림 앞에서

눈길을 끄는 갤러리가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걸려있
는 그림의 화풍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작품인
듯싶다. 동선을 따라 감상하다가 갤러리 바닥부터 시작해
천장까지 닿아있는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림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걸음을 뒤로 물러야 했다. 서너
발 뒤로 물러서니 비로소 그 큰 그림이 시야에 들어왔다.
비단 큰 그림을 감상할 때뿐이라. 살다 보면 한발 다가서
야 할 때가 있고 몇 발 뒤로 물러서고 나서야 고개가 끄덕
여질 때가 있다.

거대한 ‘ㄱ’자형 건물 칸칸이 쇼핑센터와 체험 공방이 들
어앉은 쌈지길은 인사동 여행을 더욱 맛깔스럽게 한다.
오르골 공방에서 오르골 꾸미기 체험을 한 후 쌈지길 인
근 한옥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전통차를 마시기 위해 경
인미술관으로 갔다.

경인미술관을 찾은 것 또한 20년 만이다. 잘 손질된 넓은
정원과 한옥 건물의 전통다원, 그리고 그윽한 차 향기는
여전했다. 현대식 갤러리와 아틀리에가 새롭게 들어서서
전통차와 더불어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복
합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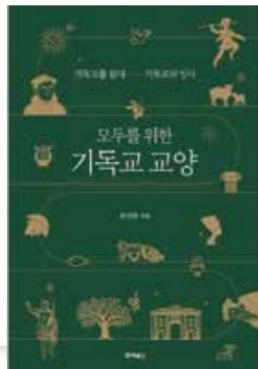
운 좋게도 전통다원의 온돌 사랑방이 비어 있었다. 사랑
방에는 큼직한 창호지 문이 2개 달려 있다. 문을 열지 않
아도 창호지를 통해 정원의 풍경이 은은하게 밀려든다. 제
법 웅장한 규모의 장독대와 그 위로 가지를 늘어뜨린 아름
드리 모과나무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다. 봄바람에 몸을
살랑이는 정원의 식물들을 바라보며 쌍화차 한 모금 마시
니 입안에 특유의 향이 퍼지고 ‘이게 세상을 걷는 거지!’ 하
는 생각이 들었다.

門안과 門밖

인사동 산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이다.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하며 19세기 후반 조
선의 정치를 주도했던 흥선대원군. 겹겹이 나라의 빗장을
걸어 그가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운현궁을 나서며 ‘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하
루에도 몇 번씩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
로 나오기도 한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은 참 가
깝기도 하고 때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가 되기도
한다. 두 세계를 연결하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는 문.
내 속에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철문은 없는지
돌아본다.

BOOK AND BOOK

정리 강혜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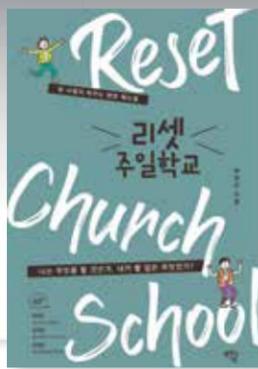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저자 : 손성찬 | 414쪽 | 23,000원 | 출판사 : 조이박스
모태신앙이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왔던 간에 교회를 다니는 동안 우리에게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쌓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구체적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런 지식의 조각들을 잘 정리하여 기독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위한 변명

저자 : 최관호 | 560쪽 | 30,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저자는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전문의라는 다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누가회(CMF)에서 사역을 하면서 젊은 세대가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성경을 읽히고 싶은 마음에 성경 속 인물을 소재로 삼아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성경 속 인물을 소개하여 그들에 익숙해지면 성경을 읽는 데에도 낯설음이 덜할 것이라 여겼다. 설교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이 책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영혼의 회복이 간절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줄 것이다.



리셋 주일학교

저자 : 박양규 | 264쪽 | 16,5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역사상 첫 주일학교는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의 주일학교를 보고 무어라 말할까? 한 명의 평신도, 한 명의 교사가 주일학교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을까? 10년 넘게 주일학교 현장에서 사역해 온 저자는 이런 고민 끝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세대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십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설립하시고, 2019년 은퇴하신 정성진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성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가실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목회개혁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역 *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학교
- 다음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성을 길러 '21세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빌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디지털헌금바구니를 설치해 주세요

교회에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디지털헌금바구니 모바일 앱(KB국민은행 제작)**을 운영합니다. ※ 만17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헌금 입력 방법이 간편해지며(본인 인증 및 헌금 종류 선택 등)
- 헌금 내역 조회 및 기도제목 입력이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디지털헌금바구니'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Goog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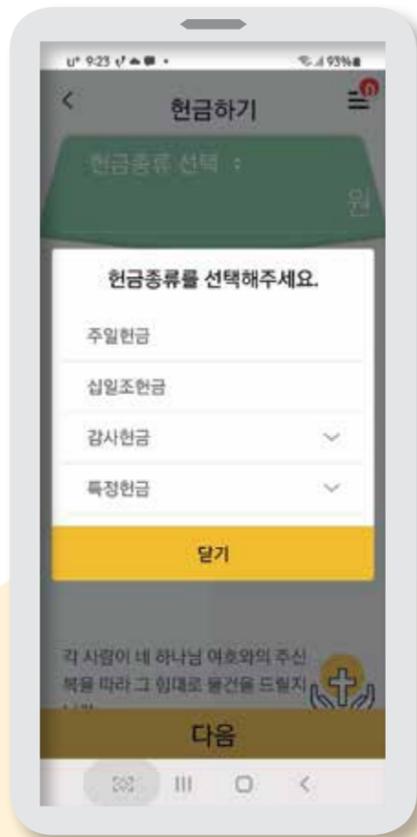


App Store



QR코드로 다운로드

'헌금하기' 버튼을 눌러 헌금합니다



헌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빛 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일	부예배	오전	7:30	광성홀	영아부	1부 오전 9:00	백합(B1)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광성홀	유아부	(영아부 1부 없음) 2부 오전 11:00	장미(B1)
	3부 예배	오전	11:00	광성홀	유치부	3부 오후 12:30	진달래(B1)
	4부 예배	오후	12:30	광성홀	초등 1부		무궁화(B2)
	5부 예배	오후	2:30	광성홀	초등 2부		난초(B2)
	농인부예배	오후	1:00	비전센터2동(2F)	초등 3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온라인가정예배	초등 4부	2부 오전 11:00	드림교육 3-2동
	수요예배	오전	10:30	광성홀	초등 5부		드림교육 3-1동
	성경대학	온라인	성경대학으로 진행됩니다		초등 6부		드림교육 1동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2F)
	어린이영어2부	오전	11:00				
외국인	태국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랑어린이	오전 11:00	민들레(B1)
	영국	오전	5:00	광성홀	사랑청소녀	오전 11:00	비전홀(B1)
	베트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랑청년1부	오전 9:00	비전홀(B1)
	영국	오전	2:30	비전센터 3동	사랑청년2부	오전 9:00	비전센터 3동
	영어예배	오후	1:00	드림교육 1동	중등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주일영상예배	2/3부	[4층그라운드홀]			고등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3/4부	[지저스아트홀]					

교육안내

코로나19로 교육훈련 조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교육	주일	오전 11:45	비전홀	생활신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알파코스	주일	오전 10:00	비전홀	성경대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일	오전 3:30	비전홀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일대일 제자양육	매일		해당교육실	수요일	오전 7:30	해당교육실	
노아스쿨	목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목자모임	수요일	오전 9:4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29-3393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사가게	911-2923	파주노인복지관	943-0730
복카페	929-3311	쿵치유센터	929-334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934-2000
지혜모아	929-3354	두드림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나와매주라기	929-3340	한나래유치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담실	929-3333	광성드림학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름머리방	929-3344	해피뱅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올리브향기	929-3388	해피천사	918-7004	심리상담소	929-3370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 자가용: 자유로 이산로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박승현 위임목사 CBS 설교방송 매주(월) 오후 7:00 KT (238), LGU+ (270), SK Btv (300), Skylife (182)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1388
아동·청소년·성인·부부 전문심리상담 심리상담소: 929-3370(예약필수, 유료상담)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사역총괄	문상원목사
● 교구관리	
1교구(제2교육)	차광욱목사
2교구(예배)	주승진목사
3교구(교구사역)	이석희목사
4교구(세계선교)	최종운목사
5교구(중보기도)	김은찬목사
6교구(전도)	박석순목사
7교구(차량)	김만석목사
8교구(통일선교 제3교육)	최병화목사
9교구(선임기획행정)	문상원목사
10교구(사회선교)	나형빈목사
11교구(국내선교봉사교역)	김종인목사
12교구(제2선교가정사역)	김현준목사
새가족교구(스포츠·회복사역)	이일현목사
유학	송화준목사
안식년	김수경목사
● 행정	
행정사역	김환전도사
목회비서	김민석목사
미디어	최성직목사
사무장	전정희사무장
영양	연광홍실장
	박유하간사
음향	이홍섭간사
재정	최민선간사
행정	한수영간사
시설관리	박명욱과장
관리원	손영철계장
	이흥구집사
	차영민집사
● 교육	
제1교육(교회학교)	한요한목사
영아부	홍진희전도사
유아부	김수진전도사
유치부	박주은전도사
초등1부	홍요한전도사
초등2부	김시란전도사
초등3부	방성빈전도사
초등4부	이재성전도사
초등5부	이재광전도사
초등6부	유현애전도사
어린이영어	김은하목사
중등부	최성직목사
	엄유현전도사
고등부	김환전도사
	신연섭전도사
제2교육	차광욱목사
청년부	최재욱목사
	차선우전도사
	박정훈목사
	백일주전도사
	차광욱목사
	최병화목사
	한요한목사
장애인사역(사랑부)	박정훈목사
사랑어린이	김대민전도사
사랑청소녀	박순심목사
사랑청년1부	김진성전도사
사랑청년2부	
● 선교 및 예배	
광성영국남	윤성로목사
태남	황경희선교사
베트남	응웬민배전도사
통일민부	노옥실목사
농인담당	이대철전도사
상도	이소영목사
전도	김용남전도사
제1찬양	박성택목사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2 SPRING
VOL.42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2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2년 4월 3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사진: 연성훈
편집: 조희경,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거룩한빛광성교회 곽승현 위임목사 생명을 살리는 말씀



거룩한빛광성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곽승현 목사의 3분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곽승현 위임목사 CBS 방송 설교

매주(월) 오후 7:00

KT(238), LG U+(270),
SK Btv(300), Sky life(182)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2년 12월 준공예정!

(2021년 11월 착공)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 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4,896.98㎡
- 2) 대지면적 : 6차선 확장 및 진입 도로 포함 11,503㎡
- 3) 용 도 : 판매시설
- 4) 대지위치 : 장항동 565-5 외 3필지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